

“ 피 검사로 모든 암 검진 다 해주세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 수검률이 예년처럼 높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도 최근 국가건강검진이 활성화되면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방법 중에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건강검진에 대한 잘못된 의학 상식도 많이 퍼져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혈액 검사를 통해 암을 대부분 다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피 검사로 모든 암을 다 발견할 수 있다면서요? 저 그거 해주세요.” - 71세 여성 환자.

“멀쩡했던 친구가 췌장암 말기로 사망했어요. 저 췌장암 피 검사 좀 해주세요.” - 64세 남자 환자.

혈액 검사로 모든 암 발견은 불가능

외래에서 흔히 보는 환자인데, 혈액 검사로 모든 암을 발견?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국민 모두에게 권해야 하지 않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답은 “아니오”다.

간편하게 피 검사만으로 모든 암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불행히도 아직 그런 방법은 없다. 일부 암(간암, 난소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중에는 암이 점점 커짐에 따라 혈중에 어떤 수치가 점점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이들을 종양 표지자(Tumor marker)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종양 표지자들은 전체 암이 아니라 일부 암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 일부의 암들에서도 암이 상당히 커졌을 때 비로소 올라가는 수치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수치들은 어떤 환자에서 암이 강력히 의심될 때 진단의 보조 목적으로, 혹은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이후에 재발 여부를 편하게 추적해볼 목적으로 주로 쓰이는 것이다.

예외가 두 가지 있는데, 알파피토단백(AFP)이라는 간암 표지자와 PSA라고 알려진 혈청전립선 특이항원이다.

AFP는 일반인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간경화 환자나 B형, C형 바 이러스성 간염 환자에게는 간암을 선별하는 목적으로 이미 쓰이고 있다. 성인 남자에서 PSA는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에 의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사망률 감소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혼재돼 나오고 있어 건강검진용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기적인 선별 검사가 중요

다른 검사들(CA-125, CA-19-9, CEA 등)은 아직 득보다 실이 많아서 검진용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양성(암이 아닌데 수치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괜히 다음 단계의 힘든 검사를 하게 되거나 심하게 걱정하는 경우도 많고, 위음성(실제 암이 있는데 정상 수치가 나오는 경우)이 나와서 암 진단이 늦어지는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최근 일부 검진센터에서 쓰이고 있는, 유전자 검사로 하는 암 검진도 확률이나 상대위험비 정도로 결과가 나오므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유전자 검사상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1.3배 높다’는 결과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2~3 배 높는데...

결국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약간 귀찮기는 하지만 해당 암 각각에 대해 따로 따로 검사를 해야 한다. 위암은 위 내시경, 유방암은 유방 촬영, 자궁암은 자궁경부의 세포도말 검사,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이나 대변잠혈 검사가 조기 발견을 위한 효율적인 선별 검사방법이다. 폐암은 ‘저선량 CT’라는 방법이 일부 집단에서 조기 발견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위양성이 문제되고 있는 상태다.

증상 나타나면 이미 늦어

이런 검사들을 언제부터, 얼마 간격으로, 어떻게 받아야 할까 헷갈린다면 자신을 잘 아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최근에는 국가건강검진을 잘 이용하면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해서 미리미리 선별 검사들을 받으시길 바란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흔한 암의 선별 검사들은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증상이 나타나면 그 암은 이미 ‘조기’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글 **신우성**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